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12월 15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로마서 13장 8-10절

설교제목 : “사랑”

성숙은 살아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살아내야 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10절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란 한마디로 신앙과 삶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 즉 신앙과 삶의 길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숙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내는 삶이란 사랑입니다. 신앙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종교사상가인 **헨리 드러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결국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고전 13:4-7을 보면,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모두 15개의 동사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제로 행함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루 아침에 숙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 4-7절에서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처음이 오래참는 것이고, 마지막도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고, 그 가운데 사랑을 유지하는 과정도 모든 것을 참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오래참고,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지만, 다른 하편은 이것은 사랑이란 시간적 요소, 즉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오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랜 시간 속에서 무르익는 덕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새댁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달콤한 맛보다는 어머니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깊이 숙성된 장맛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격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란 금전적인 빛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금전적인 빛을 저서는 안된다는 말에 초점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사랑의 빛을 지면서 살라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빛을 지면서 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빛을 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삽니다. 우리의 삶이란 서로 서로 다양한 형태의 사랑의 빛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빛은 서로 반드시 품앗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빛은 반드시 사랑의 빛을 지은 대상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받는 것을 신세 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부담으로만 여기면 안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유통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줄줄도 알아야 하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빛을 지었다면, 그 대상에게 그 빛을 갚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의 빛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댓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을 베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빛을 지었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손과 나그네를 대접하고, 연

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마22:37-39) 그렇다면, 구체적인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9-10에 보면 십계명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은 한마디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웃이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웃이 싫어하는 것을 안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 시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걸을 때 다른 사람의 신경을 거스리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고, 문을 닫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문소리를 죽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성자가 된다’. 이웃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을 지라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사랑을 받아보아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원천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매 순간 경험할 때, 마르지 않는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실체를 경험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실체적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사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리에서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고전13:13)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의 빛을 지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사랑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런 관점에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랑을 실현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사랑이 동사란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의 빛을 지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올 한해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